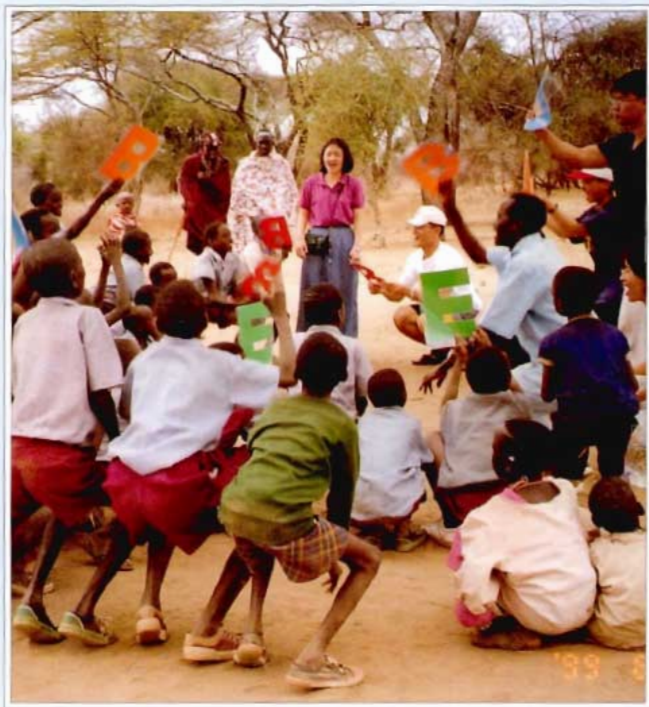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무엘상, 에베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10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무엘상, 에베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목말라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부흥의 해법을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꿈꾸는 교회마다 단기간의 숫적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면 이단사설을 늘어놓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물론, 진정한 부흥에는 숫적인 증가도 따르게 마련이지만, 숫적 증가에 부흥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육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중단한 채 16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임했고, 그들의 마음은 말씀과 함께 임하신 성령으로 새롭게 흥분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은 곧 완공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경험과 욕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전히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맡겨 드립니다.

1999년 10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1999년 10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사무엘상 서론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경고 받은 대로(레 26:14-39, 신 28:15-68, 수 23:12-16)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동족상잔이라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것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백성(言約百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게 한다. 이로써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가 되고 또한 최초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

사무엘서는 특별히 몇 가지 기록 목적이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왕국의 설립 과정과 배경을 보여 주고 둘째로, 이스라엘 왕국이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여 주며, 셋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役事)하시며 섭리(攝理)하 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의 왕국의 역사가 비록 실패로 점철된 왕국 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구속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의와 평강과 진리로 다스려질 메시아 왕국(The Kingdom of God)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 주고 이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 가도록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도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본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인 사무엘과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수행했다. 다윗도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훌륭한 대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신다.

내용 흐름

제1부 / 마지막 사사 사무엘(1:1-7:17)

1. 사무엘의 출생 / 1:1-2:10
2. 사무엘의 소명 / 2:11-3:21
3. 블레셋의 법궤 강탈 / 4:1-7:2
4.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 7:3-17

제2부 / 최초의 왕 사울(8:1-15:35)

1. 왕이 된 사울 / 8:1-11:15
2. 사무엘의 교훈 / 12:1-25
3. 사울의 불순종 / 13:1-15:35

제3부 / 다윗의 등장(16:1-31:13)

1. 기름부음받는 다윗 / 16:1-18:5
2. 사울의 시기 / 18:6-28:2
3. 사울의 몰락 / 28:3-31:13

1

(금) 왕으로 선택된 사울

찬송 / 421장 본문 / 삼상 9:1-27

미국의 한 작가가 '대통령을 팝니다'라는 매우 이색적인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역설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이미지 즉 인상(印象)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후보자는 자신감과 매력과 밝은 표정을 스며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선거 유세 때 내세울 공약에 절대 개의치 마십시오. 환한 웃음, 따스한 마음이 담긴 악수, 대중매체에 좋은 인상이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이상적인 후보자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준수한 자였습니다(2절). 한마디로 왕다운 품위와 당당한 외모를 고루 갖춘 믿음직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16:7).

사울은 본문에서 아름다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무엘에게서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21절)라고 말했습니다. 겸손과 진솔함이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으로 치달은 자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여러분이 수험생이 되어 논술 시험을 보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다섯 가지 필수적인 자질들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마도 위풍당당한 풍채, 유창한 언어 구사력, 청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카리스마적인 분위기, 강인한 성품 등을 머리 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통속적인 자질과는 사뭇 거리가 먼 지도자의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1절). 게다가 성령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예언까지 경험하게 됩니다(10절). 이 엄청난 모든 일들이 단 며칠 사이에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같이 난리를 치고도 남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집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자신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웁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놓고 왕을 공식 선출할 때에도, 그는 자신이 틀림없이 왕으로 제비뽑힐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구 사이에 숨깁니다(22절). 더 나아가 자신의 왕됨을 탐탐지 않게 여겨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일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잠잠합니다(27절). 역시 겸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도자의 귀중한 자질인 겸손을 회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지도자의 귀중한 자질인 겸손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3

(주일)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

찬송 / 402장 본문 / 삼상 11:1-15

참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진가(眞價)를 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생각해도 옳은 말입니다. 광야 시절 열두 명의 정탐군 중에 열 명이 가나안 입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을 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두 명의 정탐군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9).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담대함,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력의 진가를 사울에게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아직은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5절). 그런데 그가 명실상부하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바로 암몬 왕 나하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모든 거민의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선전포고를 해온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군사를 소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암몬을 쳐부수고 야베스 거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담대함을 잃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담대함을 소유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고대 교부(敎父) 크리스소스툼이 로마 황제 앞에 소환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념하지 않으면 그를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소스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를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내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지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토막의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신자에게는 오직 한 분의 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섬기던 세상의 왕들 곧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마 10:28) 만유의 왕 하나님뿐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나오는 사무엘의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메시지에서, 먼저 인간 왕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처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실현시키고자 왕을 대리자로 허락하신 뜻을 전합니다(12-1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과 복종의 의무를 지닌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며 그분을 좇아야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늘 기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이 평생 지속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북이의 등껍데기는 아주 단단해서 거북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등껍데기가 잘 부숴지거나 물렁물렁했다면 거북이는 병이 들거나 동물의 공격을 받아 거의 살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북이를 보호할 수 있는 껍데기를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은 사무엘이 한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는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을 보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단언한 그의 말은 오늘날 기도하는 데 보다는 인간의 힘과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자성을 일으켜 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결국 기도에 의해 측정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무 시간에 주일학교 공과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일은 어떨까요?
 이중 장부를 작성하여 얻은 탈세 이익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이것은 타당한 일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무수한 상황들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울은 재위 2년만에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므마스에 진을 친 것입니다(5절). 상황이 절박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정한대로 이레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고 레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물론 사울에게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 결행(決行)을 불순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징벌로 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믿는 자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 믿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상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신자라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번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신앙은 있는 것인가? 신자라면 뭔가 삶 속에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분명한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후 5:7)고 말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자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라면 신자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문의 요나단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이스라엘의 지극히 불리한 전세(戰勢)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자기 수종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그의 이러한 대담성은 “여호와와 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큰 전과를 올리고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림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철저한 믿음과 용기. 바로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무장된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무장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나' 라고 하는 자아가 놓여 있다는 면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 이 놓여 있는 신본주의와 전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필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반면 신본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 중심에 '나' 자신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놓여 있습니까? 본문은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물들어 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케 되자, 이 광경을 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18절). 그러나 블레셋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하면서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변하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그만두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20절). 이는 정녕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이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백성의 필요를 무시한 채 블레셋과 전투하는 동안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전쟁을 속히 종결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이기적 욕심을 드러냅니다(24절). 그러나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 (23절)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최고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히 5:8-9)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행 5:29).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죄를 다시 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방해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15:3)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축 가운데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윗처럼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려 합니다(13, 15, 20-21절). 정말 뻔뻔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콤한 불순종 뒤에 남는 것은 쓰디쓴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와 말씀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23절).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본문은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은 아말렉 진멸 사건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24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는 왕으로서 먼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즉시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으로서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권위는 권위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임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대신 자신을 내세웁니다.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결국 인본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코메디와 같을 것입니다. 입에서 '고맙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그 마음에서는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생색내긴 ...' 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되는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읽는 안경을 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말쑤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을 핑계로 우리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가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앞에서 매 순간 청결케 되어야 하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속사람을 청결케 씻어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로렌 커닝햄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면서 멋쩍게 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한, 또한 편안하게 그 말씀의 원칙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우리들은 그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할 때는 그렇게 크셨던 하나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자꾸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목소리로 ‘아멘, 믿습시다’를 연발할 수 있지만, 실제 믿음을 발휘해야하는 현장에 나가면 한없이 위축되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분명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조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과 및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끊임없이 초라해 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토록 초라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는 다윗을 무시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현장에서 발휘되는 믿음에게 하소서’.

현장에서 발휘되지 않는 믿음은 탄약없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저의 믿음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역사되는 믿음에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온갖 문제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때, 그 목적은 종종 내가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떤 안정된 믿음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가장한 과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 안에 간직된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에 맞서려는 다윗을 향해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교만을 떨고 있다고 욕했습니다(28절). 그러나 그 모욕은 강렬한 질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다윗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하고,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하려는 것'이었습니다(46-47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믿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믿음만이 바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오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려고 할 때 그는 자기 욕심에 묶이는 노예가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사울은 다윗을 극진히 아끼고 좋아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자 사울의 질투심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자기의 힘으로 왕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힘으로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우리들 안에 이런 사울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습니까? 어쨌거나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결과 악신의 노예가 되었고, 질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두려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을 두려워 하였습니다(12절).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슬픔에 처한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기쁨을 소유한 자와 함께 웃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제가 하나님의 노예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일국의 왕이 한 개인을 대적할 경우,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왕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있는 한 개인을 대적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무리 권한이 많은 왕이라도 하나님앞에서는 조무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다윗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하고자 자기 딸과 결혼시키는 혼수감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사람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일백개를 요구했습니다.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테러를 지시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다윗의 죽음만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1-7절),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8-17절), 사울의 영적 선생인 사무엘을 통해서(18-24절) 친히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 뿐 아니라,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신으로 사로잡으셔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편에 서있기만 하면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와 우리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관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최 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이끌어 내시지만, 특히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야말로 희망이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멀리 떠나지 못한 채 사울 부근에 간신히 숨어다니기는 했지만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언제 어디에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궁궐안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고한 바 있었습니다(19:2).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의도가 확고한지를 알고자 애쓰는 다윗을 도와 구체적인 지혜를 냅니다(18-22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조금할수록 쫓기기 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곤궁한 중에서 기도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를 도우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불안해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대신 그와 진정한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로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아들로써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문의 왕직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치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은 오직 다윗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따라 그는 20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요나단은 적극적인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멀리 피신 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위를 빼앗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였음에도!

요나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이름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측이 가능한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도피생활로 들어간 다윗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무엘을 키운 엘리제사장의 증손자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그 자리에 사울의 용병인 에돔인 도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은 곧 사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히멜렉과 여러 제사장들은 이미 거의 정신이 나간 사울에 의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 잔혹한 사고의 원인은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고 한탄합니다(22: 22).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여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도 다윗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느라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매순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 줍니다.

- ▶ 기도 제목 / ① 주여 당황하지 말고 매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피신한 다윗은 이제 아예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돌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 바 그 인원이 사백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받는 자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모든 신하들을 세워놓고 다윗을 잡아 오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사람 도엑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고하자 즉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자 이방인 도엑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땅인 돕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실로 악신의 노예가 된 정신나간 자의 소행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제사장 아비아달만이 그 잔인한 현장을 피해 달아나 다윗에게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뜻 아비아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니까?

▶ 기도 제목 / 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당신에게는 하나님과 나누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참으로 세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와 같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형편에서도 블레셋이 그일라(헤브론 북서쪽에 있는 유다 저지대의 성읍)를 공격하자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 때 그는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반대가 심하자, 다윗은 다시한번 하나님께 여쭙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도 블레셋과 싸우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 달려갔습니다. 이 때, 다윗은 자신이 도망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답하십니다. 그에따라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오던 길을 돌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응답을 주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과의 사이가 서먹하다 못해 서로 원수가 되어 지내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가장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블레셋의 침입으로 위태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던 왕이었다면 사실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했을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시기심과 복수심으로 가득찬 사울은 일반일이 가지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신의 사위요 신하인 다윗에게 행했습니다. 그는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찍어 붙이려 했고, 자리를 피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를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계속 일방적으로 쫓기기만 하던 다윗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원수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반면,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사울 자신이 죽음의 향해 찾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판단하기 쉬운(4절) - 기회를 두고도 그것을 거절합니다(11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고(6절), 원수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히 10:13). 다윗은 사울을 선대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낮은 뜻뜻하여졌고, 다윗은 사울의 머리 위에 편 쏜을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수갚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호미로 막을 기회를 놓치고 결국 가래로도 막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발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린채 자신에게로 온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요구한 지극히 작은 것, 곧 양털 깎는 날(잔치 날)에 자신과 자신의 소년들이 먹을 것(8절)을 거절합니다(11절). 다윗의 요구에 대한 나발의 거절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17절),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짐작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나발을 대신하여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노력으로 당장에 나발의 피가 뿌려지는 불상사는 막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쳐 버린 나발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잔치 자리에서 적은 부분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거절했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이 일이 있는 지 열흘만에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 죽게 됩니다(37, 38절). 나발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제물도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채 죽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을 남편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지혜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성령이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한정 인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내게 대해서 해를 가하는 사람이나 내게 대해서 노를 품게 하는 자 녀의 잘못에 대해서 손쉽게 무너져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다윗을 따라 다니며 죽이려 했고, 또한 다윗은 필사적으로 그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윗에게는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동일하게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간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추측을 여지없이 날려 버립니다. 지난 번 에게디 동굴 속에서 자신이 원수를 갚을 기회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없애려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십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함으로(2절) 사울의 추격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이 진친 곳을 정탐하던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발견하고 아비새가 그를 창으로 땅바닥에 찍으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은 사람을 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9절).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16, 22절). 그리하여 다시 한번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거짓말하던 양치기의 최후에 대한 우화를 잘 압니다. 이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가 나타났다면 거짓말에 속은 동네 사람들이 정작 진짜 이리가 나타났을때는 한 사람도 와서 도와 주지 않았다면 이솝우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 그는 거짓말하기를 밥먹듯 일삼는 사람이었고, 거짓 맹세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디로 피하든지간에 사울은 다윗을 찾아 다녔고, 또 사울의 뜻에 동조하는 밀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 정황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다윗이 갈 때 그를 따르던 육백인들도 그와 행동을 같이했습니다(2절).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고 그곳에 머뭙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도 이제 다윗 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울을 따돌렸다는 이 사실이 외형상으로는 문제 없는 듯하지만 다윗의 이런 행동이 사실은 경건치 않은 자와 불필요한 관계를 맺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 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래를 빼앗길 뻔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창 12:15-17).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느 시대에든지 한 왕국(국가)이 망하기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전조들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국에도 이러한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도 사울 떠나 버렸다는 말입니다(삼상 15:23).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매우 겸손해서 그 겸손이 지나치다고 -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삼상 10:22) -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수벰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진을 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이 군급(竊急)하였습니다(4, 5절). 이미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없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성전이 아닌 신접(神接)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죽고 이 땅에 없는 사무엘을 불러 내는 초혼(招魂) 행위를 합니다(12, 13절).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사울은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가장하여 올라온 영이 사울의 어리석은 비신앙적 행위의 비참한 최후를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19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도 그렇듯이 자녀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채찍을 들고서 다스리시며,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신앙적이고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사울과 대치할 전면에 세워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예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해옴으로 전장(戰場)에서 사울과 대적하는 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3-5절). 한편으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충애를 놓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윗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 왔을 때, 그의 부제 중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갔던 가족들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30절).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록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선택한 블레셋행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과의 전쟁으로 민심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그것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높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롬 8:28)는 사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자신이 이국 땅에서 그곳의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출세할 만한 좋은 기회를 -요셉이나, 다니엘같이- 얻었지만 반대하
 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29:4, 6). 그러나 다윗
 은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받았던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노
 락을 당하여 근심 중에 잠겨 있을 때(27:4,5) 다윗은 그들을 구해 내되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2절) 구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의 최선
 봉에 섰더라면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며
 서 몇번이고 살려 준 사울과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 다윗이 이 악역을 맡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
 은 아말렉을 공격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묻고(7, 8절), 아말렉인
 안내인을 앞장 세우고(9, 10절) 진군하여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아말렉을
 징복한 다윗은 전리품을 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
 한 병사들과(21-25절), 후방에서 함께 집을 지킨 유대인들(26-30절)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지극한 겸손으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사랑하던 신하요 사위인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군급(窘急)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지라도, 자신을 향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피할 수 없는 일전(一戰)을 길보아 산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는 이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2, 3절).

그런데 사울의 최후는 자신의 왕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하려 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병기 든 자의 칼을 받아 그 위에 자신이 몸을 굽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4절).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그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삼하 2:4)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암울한 시대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두움을 격으시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1:5, 9)의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엡 5:8).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빛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속어중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속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연합되는 자들입니다(2:15).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17절). 이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이신 하나님(3:14-21)입니다. 둘째,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과 강력, 능력, 역사하심으로 만유의 주로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19절). 셋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즉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 내신다는 것입니다(22,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교회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리고 때로는 자주 실수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와, 죽었던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에게는 도무지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완전히 불이 꺼진 촛불이 후자에 해당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이 꺼지려고 가물가물 거리는 쪽이 전자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4, 5절)입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2절),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자(3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요, 무할례당이요,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이(11, 12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13절)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14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생명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물은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비대해지고 모든 교권이 교황청에 집중되면서 마리아 무오성에서 심지어는 교황 무오성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죄를 사해 준다는 비복음적인 행위입니다. 루터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평신도들에게는 열려져 있지 않던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직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7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참된 근원과 사죄의 참된 근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죽을 행실에서 구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벰전 1:21).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행 10:43).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16절)이요 또한 은혜(엡 2:8)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면죄부의 효능”에 대한 공개 질의문 95개문항을 그가 일하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도록 겸손히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앞에 우리들을 내려 놓읍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② 시간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9년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고대세계의 피카디리 광장, 혹은 그리이스의 로비. 이것이 고린도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변화한 국제도시였고, 무역과 레저문화, 매춘과 술 등으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는 고린도를 가리켜 '허영의 시장' 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연극에서 고린도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술주정뱅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를 전혀 다른 면에서, 곧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곧 2차 전도여행시(AD50, 51년 경) 방문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함께 사역했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1년 반을 꼬박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겼고, 그 시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하류층 출신들이 많았습니다(1:26-29). 또 어떤 사람들은 개종하기전 방종한 생활을 한 것으로 소개됩니다(5:9-12, 6:9-11).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당을 짓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체성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

분열에 대한 답변(1:1-4:21)

서론(1:1-9)

분열상황의 지적(1:10-17)

분열의 이유에 대한 설명(1:18-4:21)

간음에 대한 답변(5:1-6:20)

근친상간의 죄에 대하여(5:1-13)

성도간의 소송에 대하여(6:1-11)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경고(6:12-20)

신앙생활에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7:1-16:24)

결혼문제에 대하여(7:1-40)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에 대하여(8:1-11:1)

공적 예배에 대하여(11:2-14:40)

부활에 대하여(15:1-58)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16:1-4)

결 론(16:5-24)

제 1 과

고린도전서(1)

좋은 재료로 집짓기

찬 송 / 379장
읽을 말씀 / 1:1-4:21
공부할 말씀 / 3:5-15

먼저 읽기

사도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말을 끝내자 마자, 곧 고린도 교회공동체 안에 만연되어 가던 분열현상을 지적합니다. 여러 파당으로 나뉜 이 분열은 결국 개인숭배로 이어지는 무서운 현상으로,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가 전도의 미려한 방식으로 전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도구에 불과한 어떤 개인을 추종하여 파당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나무에 물을 주는 자,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불과한 것이며,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 집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5-7절)
2.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나 아볼로의 역할이 별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8절)
3.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각각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9절)
4. 바울은 일꾼들을 집짓는 건축자로 비유하면서, 짓는 터는 단 하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터는 무엇입니까?(11절)
5. 일꾼마다 여러 종류의 건축재료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됩니까?(13-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이 전하는 바 '우리(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특권과 책임' 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는 어떤 특권과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 로 섬기고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어떤 기초위에 어떤 건축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집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건축사역 초기에 사단은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접근해서 '가장 쉬운 재료와 방법으로 집을 지으라' 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자를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기초 위에(나와 내 가족의 인간적 성취 혹은 현실적 안정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재료(내 경험 아니면 말씀)로 집을 짓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2 과

고린도전서(2) 법정까지 가야 합니까

찬 송 / 278장

읽을 말씀 / 5:1-6:20

공부할 말씀 / 6:1-8

먼저 읽기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공동체 안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비행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직설적인 비난과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안에는 음행과 성적인 부도덕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는 이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거룩하지 못한 영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감각을 힐책하면서 공동체 안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세상법정에까지 가서 호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소송절기를 좋아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문제는 헬라인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면서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고린도 교회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1절)
2. 바울은 '세상과 성도의 관계' 를 어떻게 설명합니까?(2절)
3. 바울은 '천사와 성도의 관계' 를 어떻게 설명합니까?(3절)
4.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무어라고 말합니까?(5절)
5.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7-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나 불만거리가 있을 때에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같이 가르치셨습니다(마 18:15-20). 나와 우리 구역 식구들은 다른 성도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혹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떠벌이므로 상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도록 만들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 묻히거나, 상처로만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부당한 대접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문제를 두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법정까지 끌고감으로 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부당한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 3 과

고린도전서(3)

매이지 않은 삶에 관하여

찬 송 / 512장

읽을 말씀 / 7:1-11:1

공부할 말씀 / 7:29-38

먼저 읽기

7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바울은 결혼의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독신으로 지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헤어져야 할지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사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 성행위나 결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매우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또한 1세기의 고린도에서는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지낸 고기를 시장에서 아주 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에 속한 문화활동들에 과연 어떻게 적절한 연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들로서, 지식의 중요성과 깨끗한 양심의 중요성,

그리고 형제사랑의 중요성 등을 제시합니다. 이 형제사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항상 관심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고린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때가 단축하여 졌다'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29절 하반절-31절 상반절)
2. 결혼하지 않은 자와 결혼한 자의 염려는 어떻게 다릅니까?(32-34절)
3. 바울은 아버지들에 대하여 딸의 결혼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권면합니까?(36-37절).

* 36절에서 '처녀 딸에 대한 일' 이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들의 결혼을 주관하되 특히 아버지의 권한이 가장 컸습니다.

4.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교회들 마다 혼기가 지났으나 아직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한 처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적절한 상대가 없어서(신앙을 가진 남자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독신을 신중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교회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가까운 지체(가족이나 이웃)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2.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들의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그것이 당신의 최대의 문제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관심이게 하십시오. 포기하고 함께 주어지는 믿음을 아십니까? 그 문제를 당신의 마음에서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3. 당신은 주님과 남편(아내) 중 누구를 더 기쁘게 하면서 생활하십니까? 주님과 남편(아내)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제 4 과

고린도전서(4)

우리의 영원한 주제, 사랑

찬 송 / 373장

읽을 말씀 / 11:2-14:40

공부할 말씀 / 13:1-13

먼저 읽기

바울은 11장부터 14장 사이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곧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합당한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14장에서는 여러 은사들 중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하나의 은사라기 보다는 모든 은사들을 은사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3장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3절은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제 아무리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용지물과 같게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1-3절)
2. 4-13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을 다룹니다. 그 중 4-7절은 사랑의 내적 본질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랑의 내적 본질은 무엇입니까?
 - 1) 나 자신 안에서(4절)-
 - 2)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5-6절)-
 - 3) 환경과의 관계에서(7절)-
3. 8-13절은 사랑의 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사랑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8절)
 - 2) 사랑의 지고한 가치는 어떻게 묘사됩니까?(13절)
4. 부분적으로 아는 것(9절),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11절), 회미한 것(12절)은 아마도 12장에서 나열한 은사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방언, 예언, 비밀한 것을 아는 지식, 죽음까지 불사하는 희생... 이 모든 화려하고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들이 전적으로 무의미해지는 순간은 바로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은 이기적인 경쟁과, 부서 이기주의와, 내 감정 앞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우리 구역은 어떻습니까?
2.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47절에서 소개되는 사랑의 본질적 특성들 하나 하나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됩니다. 각 특성들을 차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최근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 과

고린도전서(5) 동역자를 위한 권고

찬 송 / 212장

읽을말씀 / 15:1-16:24

공부할 말씀 / 16:10-18

먼저 읽기

15-16장은 '부활' 과 '마지막으로 전할 사항들' 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교회 안에 부활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따라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권위를 밝히고 이 근거위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다루면서 이를 위해 역사적인 증거들(5-11절)과 신학적인 증거들(12-58절: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다 /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경험을 의심하는 것이다 / 그것은 사도와 모든 전도자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 그것은 복음이 주는 모든 유익을 부인하는 것이다)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16장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을 위해 부탁하는 그의 권면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소개합니까?

1) 디모데에 대하여(10절 하반절) -

2) 스테바나의 가족에 대하여(15절) -

3)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하여(17절, 18절 상반절) -

2.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주
라고 부탁합니까?

1) 디모데에 대하여(10절 상반절, 11절) -

2) 스테바나의 가족에 대하여(16절) -

3)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하여(18절 하반절) -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기쁨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는 믿음으로 맺어진 이런 동역자들, 내가 전심으로 염려하고 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동역자의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2. '칭찬 폭격'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칭찬을 쏟아붓는 것입니다(물론, 아침은 곤란하겠지만). 아주 유쾌한 게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로부터 매우 인상적인 칭찬들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까요?

남성도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4 과

예배하는 생활

찬 송 / 53장
암송할 말씀 / 롬 12:1

목 상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2.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3.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을 전제로한 말씀입니까?
4.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롬 12:1에서 말씀하는 영적 예배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6. 하나님께 예배 할 때, 일차적으로 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창 4:4, 5)?
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 제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8. 영적 예배와 세속적인 예배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9. 주일에 드려지는 형식을 갖춘 예배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0.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적 용

11. 예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또 실천하고 있습니까?
12. 나의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혹은 형식을 갖춘 예배이든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고쳐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1999년 10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갑신, 김인식, 이승학 목사

구역예배공과 : 정갑신 목사

남성도구역예배공과 : 이승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
